

遊山記를 활용한 地域教育

－ 「清平山記」를 중심으로 －

권혁진*

<目次>

- | | |
|----------------|---------------------|
| I. 서론 | 3. 「清平山記」 분석 및 교육자료 |
| II. 본론 | 탐색 |
| 1. 지역교육과 유산기 | III. 결론 |
| 2. 유산기와 「清平山記」 | |

<국문 초록>

본고는 한문학이 지역교육을 위해 어떤 자료들을 개발해야 하는가에 주목 하되, 遊山記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한다.

유산기는 지역의 환경 속에서 도출되었으며, 지역의 정서와 특성을 담고 있고, 지역 주민들의 문화적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유산기를 통한 지역교육은 지역의 정서와 특성을 보여주며, 지역 주민들의 문화적 정체성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을 위주로 자료를 개발해야 한다.

첫 번째 구역인 九松臺 구역에서 구성폭포의 유래와, 지금은 발길이 드문 환희령과 삼층 석탑, 그리고 김시습을 학습할 수 있다.

影池는 청평사에 은거하면서 평생을 보낸 이자현이 만든 정원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영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고려시대 정원의 흔적이 있는 연못이다. 이러한 영지의 성격 등은 한시와 함께 학습 자료로 적절히 활용할

* 강원대학교 강사 / hjh49@paran.com

수 있다.

淸平寺 구역에 있는 보물 제164호인 회전문은 상사뱀 설화가 얽혀있는데, 이 설화는 지역의 대표적 설화라고 볼 수 있다. 상사뱀 설화는 회전문과 함께 지역교육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西川의 특징 중의 하나는 기우제를 지내던 단이 있다는 점이다. 서천은 사찰의 영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을의 수령이 기우제를 지낸 독특한 곳으로, 불교와 유교가 조화를 이루던 공간이었다. 기우제라고 하는 민속제의가 행해지던 서천은 또 하나의 교육 자료로 충분하다.

仙洞 구역에서 지역교육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淸平息庵이란 금석문과, 이자현의 행적과 그가 남긴 한시 등이다.

見性庵 구역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청평산의 승경일 것이다. 이 부분은 개정 7차 교육과정에서 언급한 지역의 특수성 조사 항목 중 자연환경에 속한다. 청평산의 기암괴석과 각 봉우리의 뛰어난 경치는 각종 자료를 통하여 교육시킬 수 있다.

이러한 지역교육은 청평산이 단순하게 경치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를 품고 있는 산이라는 것을 알게 해준다.

【주제어】 유산기, 지역교육, 청평산기, 구송대, 영지, 청평사, 서천, 선동, 견성암

I. 서론

지방화는 지역 분권과 지역 균형 발전이 강조되면서 지역학을 활성화 시켰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한문학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문학의 절대성·순수성을 고집하는 문학주의를 극복할 것을 제시¹⁾한 것이 대표적이다. 고향에서 평생을 보낸 문인들의 작

1) 임형택, 「한국문학연구자는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고전문학연구』 제25집, 한국고전문학회, 2004, p.7.

품도 유의미한 평가를 받게 되었다. 작가의 사상이나 작품 자체의 미의식, 혹은 문학사적 의미를 따지는 것은 중요하지만, 생활의 일부로서 문학이 어떻게 존재하였는가를 살피는 것²⁾도 강조되었다. 그리고 문화콘텐츠 개발³⁾이나 문화 관광 자료의 구축⁴⁾ 등에서 주도적 역할을 강조하는 연구 등도 연구자들에게 제시되고 있다. 또한 지역의 다양한 양상을 기록한 자료의 개발과, 이러한 자료들을 해당 지역의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지역교육’에 적극 활용할 것⁵⁾을 제안하기도 했다.

본고에서는 지역과 관련된 전적들을 활용한 지역교육의 방법을 더 확대하여 발전시키고자 한다. 지역교육이란 지역을 바로 알기 위해, 지역·지역인의 삶을 근거로 내용을 선정하며, 지역 공간을 터전으로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어 참여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⁶⁾ 이와 같은 지역교육은 지역화라는 교육 목표를 성취함과 동시에, 그 사회의 정체성 확립과 그 지역의 전통 문화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킨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또한 자기 고장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증대시킨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리고 획일적인 교육보다 다양성과 창의성을 존중하며 중심과 주변의 차별적 인식을 극복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결국 지역교육은 지방화를 내실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이 과정에서 한문학은 일정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고는 한문학이 지역교육을 위해 어떤 자료들을 개발해야 하는가에 주목하되, 잡기류⁷⁾ 중 遊山記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해나가고

2) 이종목, 「지방화 시대 한문학 연구의 시각과 방향」, 『한민족어문학』 제45집, 한민족어문학회, 2004, p.43.

3) 구분기·송성욱, 「한국문학 연구와 문화 콘텐츠」, 『고전문학연구』 25집, 한국고전문학회, 2004, p.53.

4) 이종목, 앞의 논문, p.43.

5) 권혁진, 「해관자집연구」, 『온지논총』 16집, 온지학회, 2007.

6) 경상대학교 교육연구원, 『한국교육의 지역화 연구 I』, 교육과학사, 2005, p.24.

7) 전장류와 비지류를 제외한 일체의 紀事文을 말한다. 사건이나 사물에 대한

자 한다.

II. 본론

1. 지역교육과 유산기

개정 7차 교육과정에 의하면 시·도 교육청은 지역의 인문 환경, 사회 환경, 자연 환경 등을 조사, 분석하여 교육 중점 과제를 추출하고, 이를 반영하여 시·도 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작성하게 되며, 지역 여건에 적절한 방향 제시 및 지원, 지도의 방법 등으로 각급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길잡이가 되도록 기술하고 있다.⁸⁾ 이러한 것은 7차 교육 과정이 시·군·구 단위의 지역 교육청의 역할을 분명히 제시하면서 지역화를 명시적으로 제시한 것과 궤를 같이 한다.⁹⁾

본고의 목표는 유산기를 통한 지역교육의 자료 개발이다. 그러면 유산기에서 어떤 내용을 활용해야 하는가? 기존의 연구 중 지역화 교육 과정의 내용을 선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점들을 살펴보도록 한다.¹⁰⁾ 첫째, 지역화 교육 과정의 내용은 지역의 정서와 특성을 담아낼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지역성을 표현한 교육 내용은 학습자들에게 친근감을 주기 때문에 교육적으로도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유익함을 제

객관적 사항을 묘사하는 글로 매우 다양하다. 산수를 유람하고 그 자연 경물과 여행에서 얻은 견문, 자연에서 받은 감동 등을 기록하는 ‘山水遊記’, 서화의 내용이나 기물의 모양 및 그 예술적 특징을 기록하는 ‘書畫雜物記’와 인물과 그에 얽힌 사건을 서술하는 ‘人物雜記’ 등이 있다. (동방한문학회 편, 『한국한문학의 이론』, 보고사, 2007. pp.263-283.)

8) 교육인적자원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2008, p.155.

9) 7차 교육과정은 교육 과정 편성·운영에 있어서 시·군·구 단위의 지역 교육청의 역할을 신설·제시하여, 교육 과정 지역화의 내실을 지향하고 있다. (교육부 고시 제1997-15호[별책 4], 『고등학교 교육과정(1)』, p.17.)

10) 기준에 대한 것은 경상대학교 교육연구원, 앞의 책, pp.119-121.을 참조하였다.

공해 줄 수 있다. 둘째, 지역화 교육 과정의 내용은 지역 주민들의 문화적 정체성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것들이어야 한다. 셋째, 지역 사람들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야 한다. 지역화 교육 과정의 내용은 지역·지역인의 삶, 문화, 이슈, 관심과 요구, 참여 등으로 구성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 문제에 적극 참여하여 애향심 고취 및 공동체 의식 함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넷째, 지역인의 제반 환경 속에서 도출되어야 한다. 요컨대 지역교육에서 중요한 내용은 지역의 자연 환경, 지역의 인물, 지역의 문화유산, 지역의 정서·가치·태도, 지역의 관습·규범·종교, 지역의 정치·경제, 지역의 이슈나 지역 주민들의 관심·욕구 등으로 나타난다.¹¹⁾

개정 7차 교육과정도 지역교육의 내용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개정 7차 교육과정은 지역의 특수성 조사 항목을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세 가지는 자연환경(위치, 지형, 기후, 면적, 도시 개발 계획 등)과 인문환경(교통, 통신, 문화, 보건, 생활 모습, 전통 문화 등), 그리고 사회 환경(인구, 취락, 인구 이동, 행정, 재정, 산업 발달 등)¹²⁾으로 세분화된다.

유산기는 위에서 제시된 조건 중 지역의 환경 속에서 도출되었으며, 지역의 정서와 특성을 담고 있고, 지역 주민들의 문화적 정체성 형성에 기여한다. 따라서 유산기를 통한 지역교육은 지역의 정서와 특성을 보여주며 지역 주민들의 문화적 정체성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자료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2. 유산기와 「淸平山記」

산을 유람하고 그 유람의 결과를 기록한 글이 遊山記다. 유산기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시각으로 이루어져왔다. 먼저 산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연구가 주목할 만하다. 그 결과 산은 신이 살고 있는 신비한 장소

11) 경상대학교 교육연구원, 앞의 책, p.125.

12) 교육인적자원부, 앞의 책, p.159.

가 아닌 인간이 살고 있는 장소, 아름다운 경관으로 詩興의 원천이 되는 곳, 단순한 探勝의 대상이 아니라 道體가 깃들인 곳으로 이를 통해 심신을 수양하는 장소, 한 지방의 상징적 존재이자 민족의 상징적 존재 등¹³⁾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유산기에 나타난 士意識¹⁴⁾에 주목하기도 하였고, 한 지역의 특정한 산을 집중적으로 분석¹⁵⁾하기도 하면서 연구의 지평을 넓혀왔다. 여기에 본고에서는 지역교육을 위한 자료 개발이란 시각으로 유산기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청평산¹⁶⁾과 관련된 유산기를 통해 유산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도록 한다.

청평산과 관련된 유산기는 청평산의 유람만을 다룬 작품과, 다른 유산기나 기록에 청평산을 유람한 내용이 포함된 작품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청평산의 유람만을 기록한 작품들은 다음과 같다. 金尙憲의 「清平錄」¹⁷⁾, 朴長遠의 「遊清平山記」¹⁸⁾와, 「重遊清平記」¹⁹⁾, 徐宗華의 「清平山記」²⁰⁾, 安錫徹의 「遊清平山記」²¹⁾, 趙寅永의 「清平山記」²²⁾ 등이 있다.

-
- 13) 이혜순 외 3인, 『조선중기의 유산기 문학』, 집문당, 1997. 이 책은 유산기의 성립과 배경뿐만 아니라 금강산유기·지리산유기·청량산소백산유기·묘향산유기 등에 대하여 자세하게 고찰하고 있다.
- 14) 최석기 외,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지리산 유람과 사의식」, 『선인들의 지리산 유람록』, 돌베개, 2007.
- 15) 정치영, 『옛 선비들의 청량산 유람록 I』, 민속원, 2007.
- 16) 청평산의 현재의 명칭은 오봉산이다. 논의 전개의 편의상 예전의 명칭인 청평산을 쓰도록 한다.
- 17) 金尙憲, 『淸陰集』(『한국문집총간』 제77권, 민족문화추진회편.) 卷10, 「淸平錄」. (이하 『한국문집총간』은 『총간』으로 약한다.)
- 18) 朴長遠, 『久堂集』(『총간』 제121권) 卷15, 「遊淸平山記」.
- 19) 朴長遠, 『久堂集』 卷15, 「重遊淸平記」.
- 20) 徐宗華, 『藥軒遺集』(『춘천지리지』, 춘천시, 1997.) 卷5, 「淸平山記」, pp.313-315. 에서 재인용.
- 21) 安錫徹, 『雪橋集』(『한국역대산수유기취편』 4, 민창문화사, 1996.), 「遊淸平山記」, pp.455-459.에서 재인용.
- 22) 趙寅永, 『雲石遺稿』(『총간』 제299권), 「淸平山記」.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지금까지 확인 가능한 청평산만의 유산기는 6편이다.

다른 유산기나 기록에 청평산 유람의 내용이 포함된 작품들로는 梁大樸의 「金剛山紀行錄」²³⁾, 丁時翰의 「山中日記」²⁴⁾, 金昌協의 「東征記」²⁵⁾ 등이 있다.

지금까지 조사된 자료 중 청평산만을 다룬 유산기는 6편이며, 다른 유산기나 기록에 청평산이 포함된 것은 3편이다. 이들 작품은 16세기부터 19세기에 걸쳐서 꾸준히 창작되었다.

그 중 본고는 서증화의 「청평산기」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그의 문집인 『藥軒遺集』²⁶⁾은 1776년(영조 52) 아들 命寅이 편집한 것을 1861년(철종 12) 증손 有洞이 간행하였다. 이 속에 「청평산기」가 실려 있다.

3. 「청평산기」 분석 및 교육자료 탐색

「청평산기」는 청평산의 유래에 대한 설명부터 시작한다. 춘천과의 거리와 본래의 명칭, 그리고 왜 청평산이란 이름을 갖게 되었는가에 대하여 간단하게 서술하고 있다. 두 번째 단락은 청평산 입구의 묘사부터 시작하여, 九松臺와 이층폭포, 龍潭, 歡喜嶺, 오층석탑, 盛香院 터를 언급하고 있다. 세 번째 단락은 影池를 중심으로 자세하게 그리고 있다. 네 번째 단락은 청평사와 그 주변에 대한 유람 내용이다. 절의 유래와 金富轍이 찬한 비석, 두 비 사이에 있는 帝釋壇, 정원 위에 있는 두 개의 연못, 회전문과 圓解門, 그리고 여러 채의 건물의 위치와 모습에 대하여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다. 다음 단락은 청평사로부터 조금 떨어진 곳에 위치한 西川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천에서 북쪽으로 몇 리 가면 仙洞

23) 梁大樸, 『靑溪集』(『총간』 제53권), 「金剛山紀行錄」.

24) 丁時翰, 『愚潭先生文集』(연세대본), 「山中日記」.

25) 金昌協, 『農巖集Ⅱ』(『총간』 제162권), 「東征記」.

26) 최근에 『한국문집총간』 속76권으로 출간되었다.

이다. 암자와 바위 옆에는 이층폭포, 羅漢殿 등을 언급하고 있다. 선동 다음 단락은 견성암을 중심으로 한 청평산 정상 구역이다. 天壇, 逍遙臺, 부용봉에 있는 立巖, 龜巖을 언급하고 있으며, 북쪽에 있는 香爐峰과 서북쪽에 있는 慶雲峰에 대하여도 설명하고 있다. 산 정상에 있던 작자는 다시 선동의 식암으로 내려온다. 앞부분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7층의 石臺가 등장한다. 다음 단락은 선동에서 西川까지 걸쳐있는 계곡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골짜기에 있는 바위와 절벽, 물이 흐르는 모양을 구체적이고 생동감 있게 그리고 있다. 이어서 영지에 당도하게 된다. 영지 주변에 있는 至莊庵에서 바라보는 경운산과 향로봉, 부용봉의 경치를 그리고 있다. 산에 있는 圓通庵의 옛 터, 또 그 북쪽에 있는 上庵, 경운산 자락에 있는 경운암과 養神庵 등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마지막 단락은 지은이의 회포를 담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청평산기는 열 한 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작품 앞부분의 청평산의 유래 부분과 뒤의 회포 부분을 제외하고, 특정 구역을 중심으로 나눈다면 구송대 구역, 영지 구역, 청평사 구역, 서천 구역, 선동 구역, 견성암 구역 등으로 나눌 수 있다.²⁷⁾ 위에서 작품을 분석한 결과 지역교육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아홉 개 단락이지만, 구역별로 나눈다면 세 단락은 여섯 구역에 포함되기 때문에 여섯 구역으로 나누어 고찰한다.

1) 구송대 구역

「청평산기」에서 첫 번째 등장하는 구역은 구송대 구역이다. 먼저 「청평산기」에 실린 부분을 살펴보도록 한다.

27) 윤영환, 『청평사』, 대원사, 2009.에서는 청평사의 세부 구역을 구송폭포구역, 영지구역, 경내구역, 서천구역, 선동구역, 견성암구역으로 나누고 있으며, 이와 같은 분류를 참고하였다.

<자료1> 청평산의 물이 산의 입구에서 흘러 나와 소양강 상류로 들어가는 데, 여기서부터 강에서 계곡으로 들어간다. 시내를 거슬러 올라가자, 길은 험하고 나무는 뻥뻥이 들어차 있다. 길은 다한 듯하다가 다시 이어지고, 산은 합쳐진 듯하다가 다시 열리곤 하길 십여 리 가서야, 비로소 九松臺에 이른다. 구송대는 돌을 쌓아 만들었다. 예전엔 臺의 위에 아홉 그루의 소나무가 있었는데, 이 중 하나가 작년에 바람에 의해 쓰러졌다. 구송대의 북쪽에 二層 폭포가 있다. 아래쪽에 위치한 폭포는 위쪽 폭포의 길이에 미치지 못한다. 산의 눈이 막 녹기 시작해 계곡의 물이 막 불어나니, 폭포의 물은 세차게 부딪치며 물보라를 내뿜는데, 그 소리는 마치 용이 뛰어오르려고 큰 소리로 으르렁거리는 듯하다. 두 폭포 사이에는 龍潭이 있는데, 웅덩이의 깊이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다. 일찍이 용이 이곳에서 숨어 살았기 때문에 이름 지었다. 앞에 버티고 서있는 돌은 오는 길에 관문 역할을 하고 있다. 붉은 斷崖와 푸른 절벽이 깎아지른 듯 서있고, 양 옆에는 단풍나무와 향나무, 삼나무와 소나무가 무성하면서 빛나고 있다. 이 때 산새 두세 마리가 나무 사이로 울며 날아다니니, 청평에서 가장 처음 눈에 띄는 곳이다.

북쪽으로 돌 많은 비탈길을 오르면 바로 歡喜嶺이다. 고개 오른쪽의 작은 언덕에는 오층으로 되어 있는 석탑이 있다. 또 그곳으로부터 수십 보 거리에 盛香院의 옛터가 있다.²⁸⁾

청평사로 향할 때 제일 먼저 마주치는 곳은 구송폭포이다. 지금은 구성폭포로 알려져 있지만 서종화의 「청평산기」에는 지금의 구성폭포와 아래에 있는 조그마한 폭포를 함께 아울러 二層瀑布라고 불렀다. 다른 자료들에서는 이단폭포, 형계폭포, 구송폭포 등으로 기록하고 있다. 지금은 터만 남아 있는 九松臺 북쪽에 폭포가 있다는 구절로 보아, 구송폭포가 와전되어 九聲瀑布로 잘못 부르고 있다²⁹⁾는 주장이 설득력 있다.

28) 徐宗華, 『藥軒遺集』 卷5, 「清平山記」, “清平之水從山口流出入于昭陽上流 自此舍江入谷 溯溪而行 岬岬叢鬱 路若窮而復續 山若合而復開者 十數里 始至九松臺 臺累石以成 臺之上曾有九株松 其一昨年爲風所倒矣 臺之北有二層瀑布 下瀑之不及上瀑丈許 山雪方融 溪水正漲 瀑之流峻激噴薄 其聲淅然 若白虬之騰躍叫哮 兩瀑之間爲龍潭 潭之深不知其幾許 嘗有龍潛居 故名之 前有撐石以關來道 丹崖翠壁削立 兩邊楓栝杉松菁蒼交暎 時有山鳥數三飛鳴其間 清平之最初開眼處也 北躋石磴乃歡喜嶺 嶺右小邱有五級石塔 又數十步有盛香院故基”

예전에는 폭포의 북쪽에 위치한 歡喜嶺을 통과하여 청평사로 갔다. 환희령은 현재 사용하는 도로에서 볼 때, 계곡 건너편 산기슭에 있다. 고개 오른쪽의 작은 언덕에 오층석탑이 있다고 하였는데, 삼층석탑을 잘못 표기한 것 같다. 또 석탑으로부터 수십 보 거리에 盛香院의 옛터가 있다고 하였다. 성향원의 명칭과 위치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그 간의 瑞香院, 盛香院을 細香院으로 정정해야 하며 위치는 현재 고려산장이 있는 주변 어느 곳이라는 주장도 있다.³⁰⁾ 여하튼 구송폭포 부근과 바로 이어지는 影池 주변에 성향원이 있었지만, 서종화가 유람하던 당시에 터만 남아 있었다. 이 터는 김시습이 거처하던 곳으로 유명하다.³¹⁾ 지역교육이라는 시각에서 봤을 때, 김시습과 관련된 자료들은 중요하다. 김시습은 청평사에 49세가 되던 해에 머문 것으로 추정된다. 그의 문집에 청평산과 관련된 시가 여러 편 수록되어 있는데, 그 중 다음 시 「有客」은 많이 알려져 있다.

有客清平寺	청평사에 나그네 있어,
春山任意遊	봄 산 경치를 즐기네.
鳥啼孤塔靜	새 울음에 고요해 지는 외로운 탑과,
花落小溪流	지는 꽃잎 따라 흐르는 개울 물.
佳菜知時秀	맛있는 나물은 때를 알고 자라고,
香菌過雨柔	향기로운 버섯은 비 맞아 부드러워.
行吟入仙洞	시 읊으며 신선골 들어가니,
消我百年憂	내 백년 근심이 씻은 듯 사라지네. ³²⁾

작자의 고독함과 공허함, 그리고 그것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바람이 잘 드러난 시이다. 생육신의 한사람으로서 불우한 삶을 살아야만 했던

29) 윤영환, 앞의 책, p.47. 참조.

30) 홍성익, 『청평사와 한국불교』, 경인문화사, 2009, pp.104-105.

31) 金尙憲, 『淸陰集』 卷10, 「淸平錄」, “寺南洞中有細香院, 淸寒子所棲止, 今廢.”

32) 김시습, 『매월당집』 卷13, 「關東日錄」, 「有客」.

김시습의 고독한 마음과 우수는 이 시에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된 듯하다. 청평산의 자연이 김시습에게 휴식처를 제공해주었기 때문이었다.

「청평산기」의 첫 번째 구역에서 구성폭포의 유래와, 지금은 발길이 드문 환희령과 삼층 석탑, 그리고 김시습과 청평사와 관련된 일들을 학습할 수 있을 것이다.

김시습에 관련된 자료³³⁾들은 김시습을 이자현과 동등한 위치로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청평사를 중건하고 청평사에서 생애를 마칠 때까지 떠나지 않은 이자현과 견줄만한 인물이 김시습이며, 그의 은거 속에서 절개를 지키려는 선비의 모습뿐만 아니라, 세속에 안주하지 않으려는 구도자적인 자세도 함께 언급해야 할 것이다.

2) 영지 구역

영지 구역은 「청평산기」에서 두 번째 등장하는 구역이다. 먼저 자료를 살펴보도록 한다.

<자료-2> 서북쪽으로 40보쯤 가서 첫 번째 다리를 건너니 길가에 山竹이 백백이 우거져 있어 불만 하였다. 비스듬히 올라가서 영지에 이르렀다. 연못은 사방이 5畝 가량 되는데, 文石으로 계단을 만들었다. 계단 위에는 赤木 네 그루가 빙 둘러 서있는데 懶翁이 심은 것이라고 한다. 크기가 모두 수십 둘레나 되며, 몸체가 구불구불하게 틀어져 있고, 가지와 잎은 매우 기이하다. 북쪽으로 芙蓉峰과 마주하고 있는데, 멀리 몇 리까지 보인다. 떨어질 듯이 높고 솟은 산의 모습이 연못에 비치는 것을 보니 臺庵의 창문과 바위의 위 아래가 모두 역력히

33) 安錫儼, 『雪橋集』, 「遊清平山記」, “自息菴李公居之而山逾聞 後有清寒子 若百淵翁 時時來見 不忍去 感慨高歌餘情 耿山壑 於是乎山之名 殆人人誦之矣”; 朴長遠, 『久堂集』 卷15, 「遊清平山記」, “春州之清平 素稱小蓬萊 蓋亦關東之一名山也 然其擅名於國中者 豈徒以山水之瑰奇已哉 自古多爲聞人之所盤旋 在麗有若李資玄 在我朝有若金悅卿 前後相望於傳記 其高風逸韻 至今聞者 猶足以興起 則此固他山之所稀有也 近世退陶李先生及白沙李相國 或以繡衣持斧 留祝融之吟 或以遭讒去國 縱西湖之遊 茲二公之所探歷 必皆不以山而以人 亦可想矣”

보인다. 바람이 잔잔한 곳에 불어와 물결이 일렁이면 봉우리와 초목이 모두 동요하니, 그 광경은 황홀하여 도저히 표현해낼 수가 없을 정도이다.³⁴⁾

<자료-3> 영지에는 至莊庵이 있는데 優婆塞가 거처한다. 암자는 경운산과 향로봉, 부용봉과 마주하며 멀고도 넓게 보인다. 동쪽으로 석벽을 보면 깎아지른 듯 우뚝 솟아 높이가 천 길 쫘 된다. 일찍이 학이 찾아와 그 꼭대기에서 노닌 까닭에 鶴巖이라고 부른다. 선동의 서쪽에는 폭포가 가로로 수 길이나 걸려 있고, 나무가 빼곡하니 들어서 있는데, 그늘지어서 앉아 설만하다. 그 북쪽에는 圓通庵의 옛 터가 있고, 또 그 북쪽에는 上庵이 있다. 경운산 자락에는 경운암이 있다. 養神庵은 見性庵의 동남쪽에 있다. 00암은 구송대의 서남쪽에 있는데, 그 남쪽에 또 修道場이 있다. 모두 볼만하다.³⁵⁾

<자료-2>는 청평사를 향하여 가는 도중에 적은 기록이고, <자료-3>은 하산 길에 기록한 것이다. 구송폭포에서 다리를 건너면 만나는 곳이 영지이다. 연못의 크기와 돌로 쌓은 연못 주변 모습, 그리고 커다란 나무의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아울러 영지의 물결에 비치는 주변 산과 암자의 모습은 황홀하기까지 하다고 말하고 있다. <자료-3>은 영지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산세에 대하여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영지는 청평사에 은거하면서 평생을 보낸 이자현이 만든 정원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정원은 구송폭포에서 식암에 이르는 방대한 규모로 구성되었으면서도 자연경관을 최대한 살리고 있기 때문에 정원문화의

34) 徐宗華, 『藥軒遺集』 卷5, 「清平山記」, “西北四十步渡第一橋 路傍山竹叢生蔚蔚可愛 迤而至影池 池方五畝 以文石爲階 階上有赤木四株環立 懶翁所植 大皆數十圍 榭榭蟠屈柯葉甚奇 北對芙蓉峯可數里遠望之 但見其碑尙形 俯鑑于池 則臺庵之窓櫺 巖石之頽仰 皆可歷歷數之已而 風至澄波熨皺峰巒草木皆動搖 光影恍惚殆不可狀”

35) 徐宗華, 『藥軒遺集』 卷5, 「清平山記」, “影池之有 至莊庵 優婆塞居焉 菴與慶雲香爐芙蓉三峰相對 迥曠 東望石壁 嵯峨削立 高可千仞 嘗有鶴來遊其上 謂之鶴巖 仙洞之西 瀑布橫懸數仞 樹木叢蒼可庥而坐 其北有圓通庵故址 又其北有上菴 慶雲之下有慶雲菴 養神庵在見性之東南 缺 菴在九松臺之西南 其南又有修道場 皆有可觀”

전형성을 보여준다고 평가받는다. 또한 영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고려시대 정원의 흔적이 있는 인공으로 조성된 연못이기도 하다. 사다리꼴 모양의 못 안에는 세 개의 큰 돌을 배치하여 단순하면서도 입체적인 변화감을 더하여 주고 있다. 이러한 정원은 일본의 고산수식정원보다 200년 앞선다고 알려져 왔다.³⁶⁾ 이러한 영지의 성격 등은 다음의 한 시와 함께 학습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止水千年一色清	고인 물은 천 년 동안 한 빛깔로 맑았거니,
上方金碧倒空明	절에 칠한 고운 단청 고요한 물에 거꾸로 비치네.
客來羞照星星鬢	찾아온 나그네 허연 머리 비치는 게 부끄러워,
聊就池邊試濯纓	애오라지 연못가에 가서 갓끈 씻어 보네. ³⁷⁾

위 시는 김상헌의 「영지」이다. 첫 번째 구는 천년 동안 맑은 연못 물을 말하며 이자현의 변치 않는 고결한 정신을 말하고 있고, 두 번째 구는 영지에 비치는 주변의 산과 암자를 형상화하면서 청평사를 둘러싼 경계가 모두 고결한 곳임을 말한다. 그 속으로 들어가는 작자는 속세에 찌든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워 영지에서 몸과 마음을 청결히 하고 있다. 청평사에 도착하기 전에 만나는 영지는 청평사를 찾는 외부인들의 마음을 씻는 정화수 역할을 한 것이다.

3) 청평사 구역

세 번째 구역은 청평사가 있는 구역이다. 유산기는 당시에 있었던 건물의 모양과 위치 등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자료4> 두 번째 다리를 따라 가다가 꺾어지면 동북쪽에 큰 절이 있다. 산은 열려 있고 물은 예뻐서 흐르고 있으며 사방의 신이 주위에서 호위하는 듯한

36) 홍성익, 앞의 책, p.107. 참조.

37) 金尙憲, 『淸陰集』, 「영지」.

것이 진정한 사찰의 뛰어난 경계이다. 처음 이름은 白巖이며(普賢이라고도 하였다.) 당나라 스님 永玄이 지었는데, 眞樂公이 중수하고 이름을 고쳐 文殊라고 하였다. 이에 관한 전말이 고려의 寶文閣 學士 金富轍이 찬한 비석에 기록되어 있다. 비는 回轉門 밖 정원의 서쪽 뜨락에 있다. 정원의 동쪽에 또 파손되어 읽을 수 없는 비가 있다. 두 비 사이에 帝釋壇이 있다. 제석단의 아래에는 참죽나무 두 그루와 노송나무 한 그루가 서 있는데, 모두 수십 아름이나 된다. 노송나무의 색깔은 앞 봉우리와 서로 섞여 푸르게 보인다.

정원의 위에는 두 개의 연못이 있는데, 모두 막혀 말랐다. 연못의 주변에는 赤木이 두세 그루 줄지어 심어져 있는데, 달빛 아래 그림자가 나올대는 것이 즐길만 하다. 회전문으로 들어가면, 圓解門이 있고, 문의 위는 降仙樓이다. 루의 기둥은 열 개이며 넓어서 수백 사람 정도가 앉을 수 있다. 離幻門을 지나면 비로소 佛殿에 이르게 된다. 불전의 이름은 能仁이다. 능인전과 강선루가 마주하고 있는데, 단청은 밝게 빛나고 규모는 크고 화려하며 斗拱이 교묘하고도 화려하여 예전에 보지 못했던 광경이었다. 가운데에 세 좌의 금부처가 있다. 불전의 서쪽에 香積堂과 동쪽에 四聖殿과 九光殿이 있다. 구광전에는 日月七星과 여러 부처 그림이 걸려 있다. 그림이 비록 오래되었으나 아직까지 더럽혀지거나 흐려지지 않아서, 정기가 마치 살아 있는 것 같다. 스님들이 “吳道子가 직접 그린 것이다”라고 하니, 대개 신라 이후의 작품은 아닐 것이다. 香積堂의 首座 妙映이 앉아 있다가 쇠지팡이를 꺼내 보여주면서 말하기를, “이것은 태조가 도읍을 세울 때, 懶翁和尚이 가지고 다니면서 성터를 획정하던 것입니다.”라고 했다.

불전의 아래에 두 개의 걸채가 좌우로 있는데, 좌측에 있는 것은 齊霞이고, 우측에 있는 것은 冥寂이다. 그 아래쪽에는 또한 동남쪽으로 요사채가 있으며, 회전문을 끼고서 좌우에 회랑이 배치되어 있는데, 모두 승려들이 거처하고 있다. 그 남쪽의 북측에는 창고가 있는데, 三寶라고 한다. 절 안에 전해져 오는 집기와 물건이 모두 이곳에 수장되어 있다. 나옹의 돌거울 또한 그 안에 있다. 향적당의 뒤쪽에는 甘露泉이 있고, 서쪽으로 꺾어서 가면 북쪽에 극락전이 있다. 극락전의 기이하고 교묘함과 영롱히 빛나는 것은 능인전과 비교하면 더욱 정채롭고 화려하다. 서쪽에 있는 회랑의 서쪽에는 샘물을 끌어들여 우물을 만들었다. 계속 따라가면 서쪽에 十王殿이 있고, 전의 아래쪽에 慈蔭閣이 있다.³⁸⁾

38) 徐宗華, 『藥軒遺集』 卷5, 「清平山記」, “循第二橋折而東北有大伽藍 山開水繞 四神周護 眞寶林勝界 初名白巖 或曰普賢 唐僧永玄所勸眞樂公重修之 改名文殊 顯末在高麗寶文閣學士金富轍所撰碑 碑在回轉門外庭西畔 庭之東又有碑剝

위 자료는 다양한 정보를 알려준다. 특히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경내 건물들과 그 형태, 정원과 연못, 그리고 나무들의 모습들은 눈앞에서 있는 듯하다. 세밀한 기록은 사찰의 변화 양상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복원 작업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유산기는 청평사의 창건 시기와 중창 시기뿐만 아니라, 回轉門에 대하여도 언급하고 있다. 보물 제164호인 회전문은 조선 중기에 세워진 문으로 큼직하고 반듯하게 다듬은 돌로 축대를 쌓고, 그 위에 주춧돌을 놓아 문과 좌우 行閣을 지었는데, 현재는 행각의 주춧돌과 문만 남아 있다. 회전문은 절에 들어설 때 만나게 되는 두 번째 문인 사천왕문을 대신하는 것으로, 중생들에게 윤회전생을 깨우치려는 의미를 지녔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회전문은 상사뱀 설화가 얽혀있다. 중국의 어느 공주에게 상사뱀이 붙어 청평사에 와서 이를 치유했다는 이야기는 일찍이 『楡岾寺本末寺誌』에 실린 이래 다양한 형태로 전해지고 있다. 조금씩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 설화는 춘천 지역의 대표적 설화이다. 상사뱀 설화는 회전문과 함께 지역교육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4) 西川 구역

네 번째 구역은 청평사 경내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위치한 서천 구역

裂不可讀 兩碑之間有帝釋壇 壇之下立二春一檜 皆數十餘圍 檜色與前峯參 望之蒼然 庭之上畔雙池 皆湮涸 赤木數三列植其傍 月下景影婆娑可喜 入回轉門 又有圓解門 門之上爲降仙樓 凡十楹而寬敞可坐數百人 度離幻門 始至佛殿 殿名能仁 能仁與降仙相對 丹雘照耀 制作宏麗 構榭之巧 節稅之華 曾所未覩也 中有三金佛 殿之西香積堂 東四聖暨九光殿 九光掛日月七星諸佛圖 圖雖古猶未漫漶 精氣如生 僧徒云 吳道子真蹟 蓋非新羅以後之手也 香積堂首座妙映居焉 出鐵筵示之曰 此我太祖朔都時 懶翁所持而畫定城基者 殿之下翼之以兩廡 左曰齊霞 右曰宴寂 其下又有東南寮 挾回轉門而排左右廊 皆緇徒居焉 南之北有庫 名三寶 寺中傳來什物悉藏之 懶翁石鏡亦在其中 香積後有甘露泉 西折而北極樂殿 殿宇奇巧金碧玲瓏 比能仁尤爲精麗 西廊之西引泉爲井 循而又西十王殿 殿之下慈蔭閣”

이다. 절에서 서쪽 방향에 있기 때문에 서천이라고 불려진 것 같다. <자료5>는 등산길에 기록한 것이고 <자료6>은 하산길에 기록한 것이다.

<자료5> 이곳으로부터 서남쪽으로 70보 떨어진 곳에 西川이 있다. 서천의 아래쪽에 절구처럼 생긴 연못이 있다. 연못 위쪽에는 臺가 있고, 대의 위쪽에 큰 소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이를 獨松이라 부른다. 매월당 김시습이 예전에 이 대 위에 정자를 지어 놓고 거처하였다고 한다. 대개 산골짜기의 물이 합류하여 이곳으로 흘러오는데, 바위를 침식하고 돌에 부딪치고 꺾이면서 물을 뿜으며 매우 빠르게 흘러오다가 연못에 이르러서 물거품을 일으켜 흐르는 물이 둥근 모양을 만들어낸 뒤에 잔잔하게 흘러간다. 단풍나무 숲과 버드나무, 괴석과 고목이 양쪽 언덕을 덮어 가리고 있어 매우 깊고 그윽한 흥취가 있다. 臺의 서쪽에는 이 층의 壇이 있는데, 고을의 수령이 기우제를 지내는 곳이다. 정성스럽게 기원하면 종종 감응이 있다고 한다. 이곳에서 꺾어져서 북쪽으로 수백 계단을 가면 두 개의 부도가 있다.³⁹⁾

<자료6> 이곳(식암)으로부터 西川에 이르기까지 몇 리쯤 되는데, 그 골짜기가 좁았다가 넓어지기도 하면서 기이한 바위와 푸른 절벽이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다. 그 아래쪽은 반석으로 되어 있는데, 돌이 솟아 있으면 물이 튀어 올라 하얗게 보이고, 돌이 평평하거나 우묵하게 되어있으면 물이 모여서 푸른색으로 보인다. 물이 합해졌다가 흩어지고, 갈려졌다가 모이고, 팔팔 흐르기도 졸졸 흐르기도 하며, 거문고가 소리를 내는 듯 구슬을 토해내는 소리와도 같다. 깊은 골짜기라 조용하고 깊으며 한가로운 흥취와 맑고 깨끗함에 고즈넉이 긴 시를 읊으며 머뭇머뭇 돌아가는 것을 잊었다.⁴⁰⁾

39) 徐宗華, 『藥軒遺集』 卷5, 「清平山記」, “自此西南去七十步有西川 其下爲白潭 潭之上臺 臺之上立一長松 以獨松名之 金梅月堂悅卿嘗於此臺上築亭以居云 蓋山澗之水合流至此 齧崖抵石屈折噴迅而下 逮潭流沫成輪 然後平鋪而逝 楓林櫻柳怪石枯木蔭映兩厓 深邃多幽趣 臺之西有二層壇 州守禱雨處 禱之以誠 往往有應云 折而北數百級 有兩浮屠”

40) 徐宗華, 『藥軒遺集』 卷5, 「清平山記」, “自此至西川幾數里強 其洞或狹或廣 奇巖翠壁擁如畫屏 其下皆盤石 石突而起則水沸而白 石平而凹則水聚而碧 或合而散 或歧而會 或嗚咽 或潺湲 或鏘然如鳴琴 或戛然如噴珠 幽谷靚深 閒趣 沖淡 悠然長嘯 盤桓忘返”

선인들이 청평산의 경치를 논할 때 주목했던 곳은 계곡이었다. 김상헌은 청평산의 泉石의 아름다움은 대관령 서쪽에서 비슷한 곳이 없다고 말한다.⁴¹⁾ 김상헌은 산이 높고 웅장하며 기묘한 것 등에서 청평산의 특징을 찾아낸 것이 아니라 계곡을 주목하였던 것이다. 조인영도 청평산의 계곡과 샘과 돌의 아름다움은 영서지방에서 유일하며, 춘천의 명칭이 山水邑인 것은 청평산 때문⁴²⁾이라고 하였다. 대부분 청평산을 찾거나 청평사를 찾는 사람들은 폭포와 회전문 등에 관심을 표하면서도, 서천의 존재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산봉우리의 아름다움을 말하는 사람은 있지만 계곡의 아름다움에 주목하는 사람은 찾기 힘들다. 따라서 선인들이 주목했던 서천의 위치와 아름다움을 소개할 필요가 있다.

서천은 김시습의 발자취가 남아 있는 곳이기도 하다. 연못 위쪽에 대가 있는데, 대 위에 정자를 짓고 거처하였다고 한다. 지금은 자취만 남아 있지만, 정자터에서 김시습의 행적을 찾아볼 수 있다.

서천의 특징 중의 하나는 기우제를 지내던 단이 있다는 점이다. 기우제를 지내는 양상은 다양하다. 무당들에 의한 기우 굿이 있는가 하면, 사찰에서 승려들이 주관하는 기우제가 있고, 조정이나 지방관청에서 왕 또는 기관장이 참여하는 유교식 기우제 등이 있다. 자료에 의하면 고을의 수령이 기우제를 지냈던 것으로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유교식 제의 절차는 기우 축문을 읽으면 되지만, 서천에 있는 절구처럼 생긴 연못에 기우 주술 행위를 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서천은 청평사란 사찰의 영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을의 수령이 기우제를 지낸 독특한 곳으로, 불교와 유교가 조화를 이루던 공간이었다. 기우제라고 하는 민속제의가

41) 金尙憲, 『淸陰集』 卷10, 「淸平錄」, “蓋淸平一洞泉石之美 大嶺以西 未有其似造化之巧 亦豈非有窮也哉”

42) 趙寅永, 『雲石遺稿』, 「淸平山記」, “洞壑泉石之美 嶺西罕有 春之號山水邑以淸平故”

행해지던 서천은 또 하나의 교육 자료로 충분하다.

5) 仙洞 구역

청평산에서 다섯 번째 구역은 선동구역이다. <자료7>은 등산하는 길에 기록한 것이고, <자료8>은 하산 하는 길에 기록한 것이다. 선동에 위치한 식암은 이자현이 거쳐하던 곳이기 때문에 선동 구역은 이자현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자료7> 북쪽으로 몇 리 가면 암자가 있는데, 날아갈 듯이 절벽 위에 세워져 있다. 암자의 오른쪽에 큰 바위가 있는데, 그곳에 淸平息庵이란 네 글자가 새겨져 있다. 바위 위에는 잣나무 두 그루와 소나무 두 그루가 있는데, 뿌리가 서리고 얽혀져 구불구불하게 되었으니 괴이하다. 바위 옆에는 이층폭포가 있는데, 물이 햇빛에 반사되어 반짝거리는 것이 마치 백학이 날개짓 하는 것과 같다. 그 옆에는 仙洞의 옛 터가 있는데, 眞樂公이 뜨락 앞의 오래된 두 그루 배나무에 지팡이를 걸어두었다고 한다. 이것은 진락공이 심은 것일까? 그 위쪽이 바로 羅漢殿이다. 그 가운데에 土佛이 있는데, 세월이 오래되어 많이 떨어져 나갔다. 나한전의 계단 아래에는 반석이 평평하게 깔려져 있는데, 산골짜기의 물이 졸졸 흘러내리면서 돌을 움푹하게 파서, 위 아래에 湯을 만들어 놓았다. 진락공이 예불할 때 목욕을 하던 곳이다. 골짜기 옆에는 石函이 있다. 바깥 면에 八卦가 새겨져 있고, 가운데에 질항아리가 안치되어 있는데, 진락공의 유골이 담겨져 있다.⁴³⁾

<자료8> 경운산으로 부터 서쪽 아래쪽으로 2리 쯤 가면 息庵이 나온다. 首僧 行均이 조를 조리하여 대접하였다. 이곳에서 잠시 쉰 후 다시 仙洞의 옛 터를 보기 위해, 시내를 따라 수십 걸음 내려가니 이층 폭포가 보였다. 서쪽에 7

43) 徐宗華, 『藥軒遺集』 卷5, 「淸平山記」, “又北數里有庵 翼然臨絕壑之上 其右巨巖 刻淸平息庵四字 巖之上 生二栢二松根相蟠結爲一輪困 可怪 巖邊懸着二層瀑布 水色暎日如翻白鶴 其傍有仙洞古址 眞樂公掛錫處 庭前兩老梨木云 是眞樂所種然乎 其上乃羅漢殿 中有土佛 歲久多剝落 殿階之下 盤石平鋪 山澗潺湲鑿其石爲上下湯 眞樂公禮佛時 沐浴處 澗邊有石函 外面刻八卦 中安陶瓶 瘞眞樂公遺骨也”

층의 石臺가 있는데, 처음엔 누가 이렇게 기묘스러운 것을 만들었는가 생각하였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 보니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다.⁴⁴⁾

선동 구역에 남아 있는 유적은 식암과 청평식암이라 쓴 글자, 이층폭포, 나한전, 반석 위의 탕, 석함, 7층 석대 등이다. 이 중 나한전과 석함은 지금 남아있지 않다.

청평식암이란 글자와 유산기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선동 입구 바위에 새겨진 淸平仙洞이란 암각 글자는 고려시대에 새겨진 것으로 금석문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청평산이 유명해진 이유 중의 하나가 이자현이 청평산에서 은거했기 때문이다. 그는 1089년(선종 6) 과거에 급제하여 大樂署丞에 임명되었으나, 사양하고 청평산으로 들어왔다. 예종이 여러 차례 불렀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禪學을 닦으며 여생을 보냈다. 대부분의 유산기는 이자현과 그와 관련된 유물과 유적을 언급하고 있고, 「청평산기」도 예외는 아니다. 지역교육에서 지역의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이 중요한 내용을 형성하고 있지만 인물도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이자현은 지역교육에서 중요한 학습자료가 된다.

그러면 이자현의 한시를 통해 그의 진면목을 살펴보도록 한다.

暖遍溪山暗換春	따뜻한 기운 山水에 차서 문득 봄이 돌아왔는데,
忽紆仙杖訪幽人	홀연히 仙杖을 짚고 숨은 이를 찾아 왔네.
夷齊遁世惟全性	伯夷, 叔齊 세상 숨음은 천성 보존 위함이고,
稷契勤邦不爲身	稷, 契이 王業에 부지런한 건 자기 위함 아니었지.
奉詔此時鏘玉佩	詔勅 받은 오늘에는 패옥 소리 쟁경대나,
掛冠何日拂衣塵	어느 날에 갓을 벗고 옷의 티끌 털려는가.
何當此地同棲隱	어느 때나 이곳에서 함께 숨어 지내면서,

44) 徐宗華, 『藥軒遺集』 卷5, 「淸平山記」, “由慶雲而西下二里路出息庵 首僧行均炊粟餽之 少憩復觀仙洞故址 緣溪而下數十武 又有二層瀑 其西七層石臺 初謂誰能作此奇巧 諦視之乃天作也”

養得從來不死身 從來의 불사신을 길러나 볼까.⁴⁵⁾

위의 시는 이자현이 곽여의 시에 차운하여 답한 칠언율시의 시이다. 이자현은 임금이 두 번이나 대궐에 들기를 명령했으나 거절하고 자신의 은둔 생활을 지켰는데, 곽여에게도 자신과 같은 삶을 살 것을 권유하고 있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완전히 자연에 귀의를 실행하지 못하는 곽여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다. 시에서 이자현은 백이 숙제의 삶과 직과 설의 삶을 대치시키며 서로 비교하고 있다. 전자의 삶은 天性을 보존하는 삶이고, 후자의 삶은 개인적인 부귀영화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라를 위한 삶이다. 그러면서 자신의 삶은 백이 숙제의 삶에, 곽여의 삶은 직과 설의 삶에 대입시키고 있다. 둘 다 나름대로 의미 있는 삶이지만 결국 이자현이 추구하고자 하는 삶은 자연 속에서 귀의하여 천성을 보존하는 삶이며, 그렇기 때문에 곽여에게도 갓 벗고 옷의 티끌 털어버리고 함께 은둔의 삶을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는 신선의 세계를 획득하자고 권유하고 있다. 이 시는 현실을 부정하고 자연으로의 귀의를 실천하여 자연과 합일하면서 천성을 보존하고자 하는 뚜렷한 이자현의 의식을 보여준 시라고 할 수 있으며, 이 시를 통해 이자현의 고결한 정신과 행적을 교육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서종화는 「청평산기」에서 청평의 경치 중 뛰어난 여섯 곳을 들고 있다. 九松臺, 西川, 影池, 仙洞, 逍遙臺, 芙蓉峰이 그것이다. 그런데 그가 그 중에서 제일로 뽑은 곳이 선동이었다.⁴⁶⁾

선동 구역에서 지역교육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청평식암이란 금석문과, 이자현의 행적과 그가 남긴 한시 등이다.

45) 『과한집』 권중.

46) 徐宗華, 『藥軒遺集』 卷5, 「清平山記」, “柳柳州所謂清冷之狀 與日謀澹澹之聲 與耳謀悠然而虛者 與神謀淵然而靜者 與心謀者先寫此中趣 噫眞仙洞也 故余評清平之勝槩 較著者有六曰九松臺曰西川曰影池曰仙洞曰逍遙臺曰芙蓉峯 惟仙洞爲最也”

6) 견성암 구역

유산기의 마지막 구역은 견성암 구역이다.

<자료9> 동쪽으로 언덕을 오르고 계곡을 지나 몇 리 가면 見性庵에 이르니, 일찍이 영지에 거꾸로 비춘다고 한 곳이다. 견성암과 선동의 사이에 天壇이 있는데 스님들이 기도하는 곳이다. 단으로부터 조금 북쪽으로 가면 암벽이 깎아지른 듯이 부용봉을 에워싸고 있다. 부용봉 허리 아래는 푸르른 것이 괴이하게 아름다운 옷처럼 주름졌다. 이러한 까닭에 裳巖이라고 한다. 견성암은 빈터에 의지하여 지어져 있어 아득하니 속세와 떨어져 있다. 돌을 뚫어 잔교를 만들어 놓았으며 에워싸고 있는 바위가 병풍처럼 있다. 뒤로 흰 구름이 어렴풋이 비추며 울타리처럼 둘러싸고, 앞으로는 연못이 거울처럼 맑기만 하다. 난간에 기대 한번 보니 마음은 편안해지나 눈은 놀라는데, 홀연히 회오리바람이 위로 올라와 하늘에 까지 이른다.

계단 아래에는 백 길이나 되는 노송나무가 있다. 뒤쪽으로 가서 북쪽으로 돌아오고, 또 꺾어져서 서쪽으로 백여 층계를 가면 逍遙臺에 다다르게 된다. 산기슭의 머리 부분이 잘라져 돌이 드러나면서 대가 된 것인데, 그 위에 너댓 사람이 앉을 만하다. 험한 골짜기에 임하여 있는데 수천 길이나 된다. 이곳에서 남쪽으로 바라보면 층층이 쌓여 있는 봉우리가 주위를 빙 둘러싸고 있다. 뛰어올라 솟아나온 듯한 대단한 산의 기세를 모두 보여주는데, 기이한 형태와 자태를 모두 다 기술할 수가 없다. 산의 푸르른 기운은 아래로 퍼지고 상쾌한 기운은 옷소매를 가득 채우는데, 마침 늙은 중 天浩라는 사람이 따라왔다. 그와 만나절 동안 얘기를 나누었는데, 이야기가 맑고 깨끗하여 들을 만 한 것이 마치 신선인 洪厓와 羨門과 함께 세상 끝 아득히 먼 곳에서 같이 있는 듯하였다.

부용봉은 소요대의 북쪽에 있다. 극락전 서쪽의 산기슭으로부터 북쪽으로 몇 리를 가면 동쪽으로 부용봉의 자락에 이르게 된다. 석벽이 우뚝 솟아있어 곧바로 올라갈 수 없고, 돌길을 따라 구불구불 올라가면 꼭대기에는 立巖이 있다. 바위 남쪽의 돌은 거북 모양으로 튀어나와 龜巖이라고 부른다. 그 북쪽에 香爐峰이 있는데, 높이가 부용봉과 같다. 그 서북쪽에 慶雲峰이 있는데, 양 봉우리 사이가 깎아지른 듯 험하여 새들만이 길을 통하여 갈 수 있을 정도이다.

경운봉의 아래쪽에는 穴巖이 있는데, 겨우 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다. 혈암

의 좌우는 모두 절벽으로 되어 있어 밭을 디딜만한 곳이 없다. 혈암으로부터 위로 올라가면, 마침내 앞에 봉우리의 정상에 이르르게 되는데, 앞의 두 봉우리보다 더 높아 시야가 더욱 넓어진다. 동쪽으로 보니 사방이 환히 보이고, 서쪽으로는 龍華山을 마주 대하고 있으며, 북쪽으로는 狼川에 임하여 있고, 남쪽으로는 泉田이 보인다. 그러나 중첩된 산봉우리와 높이 솟은 고개가 사방을 둘러싸고 있어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불과 100여리에 지나지 않는다.

세 봉우리의 위와 아래에 기이한 돌과 바위가 죽 늘어서 나열되어 있는데, 마치 사람이 서 있는 듯. 짐승이 쪼그리고 있는 듯 하며, 혹 臺를 이루고, 혹 병풍을 이루며, 동굴이 깊이 패여 있고, 각 봉우리가 들쭉날쭉한 것이 기이한 형상이 아닌 것이 없다.⁴⁷⁾

위 자료는 견성암을 제외하면 청평사를 에워싸고 있는 산과 특이한 바위에 대한 묘사로 이루어져 있다. 견성암 주변에 있는 천단과 소요대, 부용봉에 있는 상암과 입암 등의 독특한 형상을 말하고 있으며, 경운봉의 혈암에 주목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청평산의 승경이다. 이 부분은 개정 7차 교육과정에서 언급한 지역의 특수성 조사 항목 중 자연환경에 속한다. 청평산의 기암괴석과 각 봉우리의 뛰어난 경치는 각종 시청각

47) 徐宗華, 『藥軒遺集』 卷5, 「清平山記」, “東而登崗越壑數里 至見性庵 會所倒映於影池者也 見性仙洞之間 有天壇 緇徒祈禱處 自壇而稍北巖壁削成抱繞芙蓉峯 腰下蒼翠詭怪巖積如雲錦裳 故名裳巖 見性憑虛結構 縹緲絕塵 醫石爲棧 繞巖爲屏 白雲隱映藩擁於後 清潭澄澈鏡平於前 凭欄一視 心舒目駭 忽然若飄浮上騰 以臨空虛也 階下有百丈老檜 由後而北轉 又折而西百餘級 至逍遙臺 山麓斗斷石出爲臺 上可坐四五人 臨絕壑殆數千仞 南向而望之 層巒疊嶂環擁周羅 踴躍奮迅者一一呈露 奇形異姿不可盡述已而 山嵐下布爽氣盈袖 適有老釋天浩者隨 至半日談話 清灑可聽 疑與洪崖羨門 相接於九垓汗漫之外也 芙蓉峯在是臺之北 自極樂殿西鹿 北涉數里 東到峯低 石壁矗立不可直上 緣磴逶迤 而上有立巖 巖之南石出爲龜形 名曰龜巖 其北有香爐峯 高與芙蓉等 其西北有慶雲峯 兩峯之間 斗絕險巖 纔通鳥道 慶雲之下有穴巖 僅容一人 左右皆絕壁 無着足處 由穴巖而上 遂至峯頭 於前二峯最高 眼界益濶 東瞰四明 西當龍華 北臨狼川 南望泉田 然疊嶂峻嶺四隅 周遭所眺 都不過百餘里 三峯之上下 詭石怪巖森然羅列 或人立 或獸蹲 或爲臺 或爲屏 嵌穴透邃稜隙*研 奇形異狀無所不有”

자료를 통하여 교육시킬 수 있다.

Ⅲ. 결론

지방화는 지역 분권과 지역 균형 발전이 강조되면서 지역학을 활성화 시키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한문학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 중의 하나는 지역의 다양한 양상을 기록한 자료의 개발과, 이러한 자료들을 지역교육에 적극 활용하는 방법의 모색이다.

본고는 한문학이 지역교육을 위해 어떤 자료들을 개발해야 하는가에 주목하되, 잡기류 중 遊山記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개정 7차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시·도 교육청은 지역의 인문 환경, 사회 환경, 자연 환경 등을 조사, 분석하여 교육 중점 과제를 추출하고, 이를 반영하여 시·도 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작성하게 되며, 지역 여건에 적절한 방향 제시 및 지원, 지도의 방법 등으로 각급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길잡이가 되도록 기술하고 있다.

유산기는 위에서 제시된 조건 중 지역의 환경 속에서 도출되었으며, 지역의 정서와 특성을 담고 있고, 지역 주민들의 문화적 정체성 형성에 기여한다는 항목을 만족시킨다. 따라서 유산기를 통한 지역교육은 지역의 정서와 특성을 보여주며, 지역 주민들의 문화적 정체성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을 위주로 자료를 개발해야 한다.

「청평산기」는 구송대 구역, 영지 구역, 청평사 구역, 서천 구역, 선동 구역, 견성암 구역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청평산기」의 첫 번째 구역인 구송대 구역에서 구성폭포의 유래와, 지금은 발길이 드문 환희령과 삼층 석탑, 그리고 김시습과 청평사와 관련된 일들을 학습할 수 있다.

영지는 청평사에 은거하면서 평생을 보낸 이자현이 만든 정원의 중앙

에 있다. 영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고려시대 정원의 흔적이 있는 연못이며, 일본의 고산수식정원보다 200년 앞선다고 알려져 왔다. 이러한 영지의 성격 등은 한시와 함께 학습 자료로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

보물 제164호인 회전문은 조선 중기에 세워진 문으로, 현재는 행각의 주춧돌과 문만 남아 있다. 회전문은 상사뽕 설화가 얽혀있는데, 이 설화는 춘천 지역의 대표적 설화라고 볼 수 있다. 상사뽕 설화는 회전문과 함께 지역교육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서천의 특징 중의 하나는 기우제를 지내던 단이 있다는 점이다. 서천은 사찰의 영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을의 수령이 기우제를 지낸 독특한 곳으로, 불교와 유교가 조화를 이루던 공간이었다. 기우제라고 하는 민속제도가 행해지던 서천은 또 하나의 교육 자료로 충분하다.

선동 구역에서 지역교육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청평식암이란 금석문과, 이자현의 행적과 그가 남긴 한시 등이다.

전성암 구역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청평산의 승경일 것이다. 이 부분은 개정 7차 교육과정에서 언급한 지역의 특수성 조사 항목 중 자연환경에 속한다. 청평산의 기암괴석과 각 봉우리의 뛰어난 경치는 각종 시청각 자료를 통하여 교육시킬 수 있다.

이러한 지역교육은 청평산이 단순하게 경치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를 품고 있는 산이라는 것을 알게 해준다.

<參考 文獻>

- 金尙憲, 『淸陰集』, 『한국문집총간』 제77권.
 金昌協, 『農巖集Ⅱ』, 『한국문집총간』 제162권.
 朴長遠, 『久堂集』, 『한국문집총간』 제121권.
 徐宗華, 『藥軒遺稿』, 『춘천지리지』, 춘천시, 1997.
 安錫徹, 『雪橋集』, 『한국역대산수유기취편』 4, 민창문화사, 1996.
 梁大撲, 『靑溪集』, 『한국문집총간』 제53권.
 尹 鏞, 『白湖集』, 『한국문집총간』 제123권.
 李 滉, 『退溪集 I』, 『한국문집총간』 제29권.
 丁時翰, 『愚潭先生文集』, 연세대본.
 趙寅永, 『雲石遺稿』, 『한국문집총간』 제299권.
- 경상대학교 교육연구원, 『한국교육의 지역화 연구 I』, 교육과학사, 2005.
 교육인적자원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2008.
 구분기·송성욱, 「한국문학 연구와 문화 콘텐츠」, 『고전문학연구』 25집, 한국고전문학회, 2004.
 권혁진, 「해관자집연구」, 『온지논총』 16집, 온지학회, 2007.
 동방한문학회 편, 『한국한문학의 이론』, 보고서, 2007.
 윤영환, 『청평사』, 대원사, 2009.
 이종묵, 「지방화 시대 한문학 연구의 시각과 방향」, 『한민족어문학』 제45집, 한국민족어문학회, 2004.
 이혜순외 3인, 『조선중기의 유산기 문학』, 집문당, 1997.
 임형택, 「한국문학연구자는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고전문학연구』 제25집, 한국고전문학회, 2004.
 정치영, 『옛 선비들의 청량산 유람록 I』, 민속원, 2007.
 최석기외, 『선인들의 지리산 유람록』, 돌베개, 2007.
 홍성익, 『청평사와 한국불교』, 경인문화사, 2009.

Abstract

*Using Yusangi(遊山記) local education - In the theme of
Cheongpyeongsangi(淸平山記) / Kwon Hyuk Jin**

This paper Sino some resources for the region to develop educational haneungae have noticed. Yusangi are centered in discussions. Based heritage of the environment in the region have been identified. the area contains emotions and characteristics, and local residents contributed to the formation of cultural identity is an aspect. Therefore, Yusangi in the region through education and shows the characteristics of the atmosphere, the cultural identity of local residents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resources should be focused.

Gusongdae section configuration in the first district of origin and of the waterfall, the trail is now a rare hwanhereong and three-story pagoda, and you can learn gimsiseup.

Yongji is located in the center of the garden. retirement and a lifetime spent in cheongpyeongsa made Koryo Dynasty, the oldest estates in the country traces of the garden is the pond Temporary character of the Yongji, With these learning materials can be utilized properly.

Treasure cheongpyeongsa in section 164 of revolving door Sport sangsabaem was intertwined tales, folk tales, this story is typical of the region can be seen.

Sangsabaem narrative revolving door with the local schools will be able to use the datao.

One of the characteristics of Seocheon is that the intimate stage. Seocheon temples in the area of the town, despite the former rain of the unique place of

* Lecturer of Kangwon Univ. / hjh49@paran.com

receipt, Buddhism and Confucianism formed the space that was in harmony. I have been played in the Folk Festival Rain Seochon also one of the training materials are sufficient.

Instigation of the local schools in areas that can serve as documentation that the expression of cancer Cheongpyeong epigraphs and include the acts and he temporarily left behind.

Gyeonseongam section, we will take notice of the Cheongpyeongsan seunggyeong.

This part is mentioned in the revised curriculum in the 7th item of the particularity of investigation belongs to the natural environment. Cheongpyeongsand rocks and great views of each peak by the various materials can be educational.

【Key words】 Yusangi, community education, Cheongpyeongsangi, gusongdae, Yongji, cheongpyeongsa, Seocheon, gyeonseongam

투고일 : 11월 10일, 심사일 : 11월 29일, 게재확정일 : 12월 7일